환경음악의 예술적 함의 고찰

: <달려라피아노>, <숲 쓰레기 콘서트>, <북극을 위한 비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tistic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Music

: Focusing on <Run Piano>, <Forest Garbage Concert>, <Elegy for the Arctic>

Choi Jungsoo the doctor's cours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Ⅰ1.1 연구배경

예술은 창조적 활동이며 내면과 연관을 맺는 행위로 인간의 정신작용에 영향을 준다. 과거의 예술은 넓은 의미의 'art' 현대의 예술은 좁은 의미의 'Art' 로 구분해 표기하기도 한다. 최근 예술은 고유의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융합하는 종합예술로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자연에서 연주하는 공연의 사례를 분석하여 예술적 함의를 조명하고자 했다.

Ⅰ1.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자연환경에서의 음악 활동이 환경의식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형성하며 미학을 함의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관객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 <달려라 피아노>, <숲 쓰레기 콘서트>와 관객이 매체를 통해 감상한 프로젝트<북극을 위한 비가>이며 연구방법은 환경을 무대로 활동하는 음악가, 음악 신문기사, 문헌연구 및 유튜브 영상을 참고 했다.

Ⅱ. 서론

동양에서는 예술에 '선(善)'을 포함한다. 도덕과 윤리의 '선'을 예술에 적용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움의 '미'(美)를 추구한다(최정수 2021:1009) 인간은 사고에 따라 변화되는 존재로 자연환경에서의 음악활동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음악이라는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시킨다. 환경음악의 예술행위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맥락인 장소특정적미술(site-specific art)과 공통점이 있다. 작품이 놓여진 그 장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기때문에 반드시 환경과 더불어 예술행위가 이루어 진다. 환경음악은 관객이 반응하고 의식의 확장이 일어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Ⅲ. 본론 자연환경에서의 공연 사례

3.1 달려라피아노(2013)

2013년 6월 선유도공원에서 아티스트 밥장과 함께 한 페인팅 작업으로 거리나 광장에 피아노를 설치했다. 시민들은 제공된 피아노 공간에서 자유로운 동선을 형성하며 즉흥적 공연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인의 연주가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관객이 아닌 예술의 주최가 된다. 피아노를 둘러싼 환경은 자신과 사물의 관계,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사고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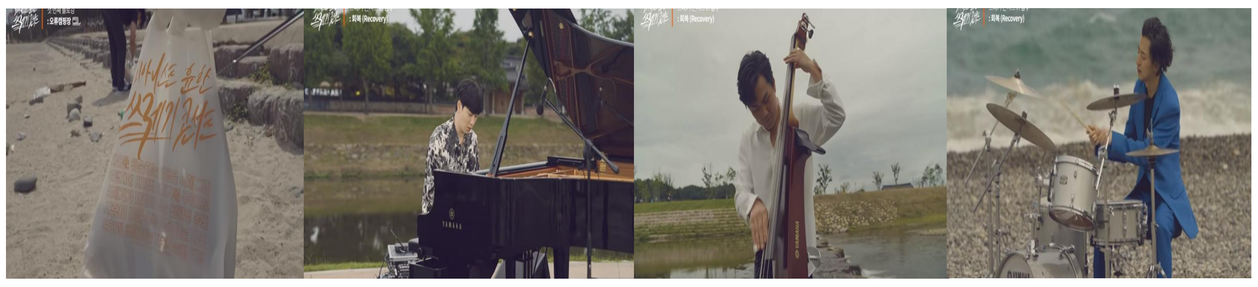


<그림 1> 야외에 설치된 <달려라 피아노>

환경은 관객의 다양한 박자, 리듬, 음역을 넘나드는 소리창조의 예술공간으로 변화된다. 예술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재의 위치(actual location)인 리얼리티 장소에서 경험하고 해석하게 되므로 환경과 관객은 작품의 핵심요소가 된다.

3.2 숲 쓰레기 콘서트(2013)

2013년 9월5일(목)~17일(화) 경주에서 진행된 <피아노의 숲 콘서트>는 버려진 쓰레기가 티켓이 되는 재미로 환경음악을 주목시킨 프로젝트다. 분해되는 자연친화적 봉투를 나누어 주고 쓰레기를 담아오면 입장권으로 교환해준다. 플로깅(plogging) 장소는 관광객들이 많은 오류 캠핑장, 신라왕릉이 위치한 삼릉숲, 야경명소 월정교로 지정했다. 관객은 쓰레기를 주어 입장티켓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의미와 마주한다. 피아니스트 윤한은 <회복>이라는 연주로 주제를 부각시켰다.



<그림 2> 숲 쓰레기 콘서트



3.3 북극을 위한 비가(Elegy for the Arctic)

2020년 40년 관측이래 그린란드의 빙하 유실이 최고치로 기록된 북극의 빙하유실 현상은 먹이사슬과 생태계의 혼란 및 파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마리아 엔리코 에이나우디(Ludovico Maria Enrico Einaudi 1955~)는 해빙되고 있는 북극해에서 피아노를 연주함으로 환경을 주목시켰다. 그는 알프스 산맥과 같은 자연을 소재로 작곡하고 2019년 '세븐 데이스 워킹(Seven Days Walking)'를 발표했다.



<그림 3> 해빙되는 북극에서 연주하는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이 프로젝트는 북극해라는 오지에서 이루어져 찾아오기 어려운 소격효과를 지니므로 관객의 비판적사고를 유도한다. 유기체가 공존해야 할 것, 결코 환경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고 자연과 협응, 조화, 소통을 이루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경고를 담는다. 북극해라는 오지는 관객이 찾아오기 어려워 소격효과(疏隔效果)를 지니므로 관객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고 지구온난화로 파괴되어가는 생태계 위기를 주목시킨다.



자연환경에서의 음악활동은 동서양이 동일한 '선 ' 의 개념을 담은 예술로 환경의식의 확장을 호소한다. 이러한 사실로 환경 음악이 '선'을 이루려는 미학(美學)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Ⅵ. 결론 환경음악의 예술적 함의

본 고는 <달려라 피아노>, <숲 쓰레기 콘서트>, <북극을 위한 비가> 세 프로젝트의 사례를 제시하여 환경음악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자연과 음악의 공존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인간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적 시각을 제공한다. 연구의 결과 환경음악의 의의는 첫째. 자연환경과 음악의 연결은 환경의식의 확장으로 인류에게 유의미하다. 둘째, 환경음악은 새로운 예술의 장르로 평가된다. 셋째, 환경음악은 동서양이 동일하게 자연을 보호하고 소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환경음악은 인간다운 성찰의 미학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환경과 음악을 연결하는 인류 행복의 담론으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니꼴라 부리요,『관계의 미학』, 현지연 옮김, 미진사, 2011, p.199

래리 샤이너,『순수예술의 발명』, 조주연, 인간의 기쁨, 2015, p.48

장정애 (2008).「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 및 환경친화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효과」vol.12, no.4, 유아교육학논집, pp. 69-88

최정수(2021).「'인'의 측면에서 본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작품 연구」, 문화와 융합, vol.43, no.3, 통권 79호 p.1009

할 포스터,『실재의 귀환』, 이영국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88.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30578

https://namu.wiki/w/%EB%A3%A8%EB%8F%84%EB%B9%84%EC%BD%94%20%EC%97%90%EC%9D%B4%EB%82%98%EC%9A%B0%EB%94%94 Ludovico Einaudi - "Elegy for the Arctic" - Official Live

https://uncommonandcurated.com/2022/04/22/a-beautiful-break-ludovico-einaudi-elegy-for-the-arctic/(2022 년 8월26일)

https://www.youtube.com/watch?v=2DLnhdnSUVs(2022년 8월 25일)

"아픈 마음 어루만지는, 현대인에게 딱 맞는 음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4215#home 중앙일보 2021.05.11. 00:03

"숲 쓰레기 콘서트" https://www.youtube.com/watch?v=5upDF3EBp1U(2022년 8월 27일)

"공공예술 달려라 피아노" https://www.youtube.com/watch?v=OQrct6Zf-G4(2022년 8월 27일)